고성 전통사찰 순례로 '休' 하세요

경남 고성 5대 전통산사 순례여행

9월 11일~11월 22일, 3차로
비대면 선착순 20명 접수 중
인문학콘서트 및 템플스테이
"불교문화 알 수 있는 시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고성 연화산 옥천사가 9월 12일~11월 22일 '경남 고성 5대 전통산사 순례여행'를 개최한다. 사진은 고성 문수암 전경이다.

코로나로 지친 현대인과 불자들의 쉼을 위한 산사순례가 진행된다. 고성에 위치한 천년고찰이 지닌 고즈넉함에 힐링이 되는 시간이다.

고성 연화산 옥천사(주지 원각)가 9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경남 고성 5대 전통산사 순례여행' (이하 순례여행)을 개최한다. 순례여행은 1박 2일로 3차에 걸쳐 진행되며 템플스테이 및 인문학 콘서트가 함께 진행 돼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일정은 1차 9월 12~13일, 2차 10월 10~11일, 3차 11월 21~22일이다. 9월 일정은 조계종에서 발표한 코로나 예방 수칙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인문학 콘서트 강의와 사찰 순례는 옥천사 '네이버 밴드'를 통해 업로드 된다. 그 외 10월과 11월 일정 참가자는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선착순 20명으로 제한적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인문학 콘서트 1차는 불교신문 이성수 기자가 '고성 근대불교와 5대 전통산사'를 주제로 강연하고, 2차는 이종수 순천대 사학과 교수가 '고성불교의 역사와 5대 전통산사'를, 3차는 남원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이 '고성불교의 사상과 5대 전통산사'를 주제로 강연한다. 산사 순례는 9월 13일 옥천사와 계승사, 10월 11일 문수암과 운흥사, 11월 22일 장의사 순으로 진행된다.

전통사찰 옥천사는 쌍계사 말사이며 신라 문무왕 16년(676) 의상대사가 화엄전교십찰의 하나로 창건됐다. 옥천사라는 이름은 대웅전 옆에 감로수가 나오는 옥샘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계승사는 금태산 기슭에 자리했으며 신라 문무왕 15년(675)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고려말 이성계가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 내려왔다가 수행하며 조선 창건의 꿈을 키웠다고 알려진다.

문수암은 무이산에 위치했으며 신라 성덕왕 5년(706)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기암절벽과 남해안의 크고 작은 섬들을 볼 수 있어 명승지로 유명하다.

운흥사는 와룡산 향로봉 중턱에 위치한다. 신라 문무왕 16년(676)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임진왜란 당시 지역 승병의 본거지였으며 사명대사의 지휘 아래 6000여명의 승군이 왜군과 전투를 벌인 호국성지도량이다.

장의사는 거류면 거류산 중턱에 자리한다. 신라 선덕여왕 1년(632) 원효대사가 창건했다. 기암괴석이 웅장하게 치솟아 울창한 수목과 더불어 조화를 이뤄 장관을 연출한다.

옥천사성보박물관 관장 원명 스님은 "이번 프로그램은 천년 넘게 이어온 고성의 대표적인 5대 전통산사인 옥천사, 운흥사, 문수암, 장의사, 계승사를 순례하는 프로그램이다. 옥천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고즈넉한 산사의 정취를 느껴보고 전통문화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명사와 함께하는 인문학콘서트를 통해 고성의 불교문화를 깊이 알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고성 5대 전통산사 순례여행'은 고성군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055)673-4951

'제주 4·3과 불교' 순회전시회 금산사서 개막

9월 16일까지 금산사 보제루 전시

제주 4·3항쟁 72주년을 맞아 큰 피해를 입었던 불교계의 아픈 역사를 담은 기록물과 상생을 염원한 예술작품들을 모은 전시회가 서울, 대구에 이어 김제 금산사에서 열리고 있다.

8월 27일부터 9월16일까지 금산사 보제루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조계종 사회부, 금산사, 제23교구 신도회,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등의 후원을 통해 마련됐다.

'제주불교, 동백으로 화현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지난 5월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처음 열려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전시회는 제주4·3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종교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전무해 더 이상 묻어 둘 수 없다는 공감에서 기획됐다. 제주 관음사와 4·3희생자추모회 등은 제주 4·3사건을 회고하고 불자 및 시민들에게 역사적 교훈의 장을 마련하고자 전국 순회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전시회는 이수진(회화), 윤상길(도예), 김계호(사진) 작가가 4·3사건 피해 현장을 순례하고 생존자, 관계자들의 증언을 기록한 작품 41점과 도자기 공예품 5점 등을 선보인다.

순회전시회는 8월 12~26일 대구 리운갤러리를 시작으로 8월 27일~9월 16일 김제 금산사 보제루, 9월 18~29일 남양주 봉선사 육화당, 10월 8~21일 평창 월정사 성보박물관 야외회랑에서 각각 열린다.

8월 30일 금산사 보제루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제주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은 "70여 년 전 스님 16명과 사찰 35개소가 불타는 아픈 역사로 제2의 무불(無佛)시대를 초래했던 야만적인 역사를 밝히고 또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교훈과 함께 지옥 중생을 보살피고, 총질했던 자들의 두터운 업보를 용서하기 위해 전시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산사서 열린 4·3 불교순회 전시전 모습. 시민들에게 역사적 교훈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발의와 함께 미래통합당에서도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이 있어 시의적절한 행사"라고 말했다.

이번 순회전시에는 이수진(회화), 윤상길(도예), 김계호(사진)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김계호 작가는 4.3 현장을 순례하며 기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토벌대의 야만적인 탄압을 피해 흥룡사 경내 용장굴에 피신했던 제주민들이 고통을 동굴이라는 폐쇄된 공간을 통해 암흑과 촛불로 부처님의 자비와 생명의 고귀함을 표현했다.

보리예술가로 알려진 이수진 작가는 70여 년 전 제주의 주요 식량 작물인 보리를 소재로 야만의 역사와 아픔을 작품에 담는다. 4·3당시 공권력에 의해 불타서 사라진 마을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고 자란 보리줄기와 4·3학살터에서 자라난 숨비기나무 열매를 채취해 보릿대를 염색해 4·3의 아픔을 표현했다.

윤상길 작가는 제주라는 섬에 살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쫓기고, 숨고, 죽임을 당한 넋을 위로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작업 전 기도와 명상을 통해 받은 느낌을 토대로 전통 망댕이 장작가마에서 백분토와 조합토, 무유, 백유 등의 재료를 이용해 중생구제가 화두였던 스님들의 '순교' 등을 표현하며 극락왕생 발원을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대학 동문, 코로나 방역 나섰다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8월 30일 방역 봉사



금정불교대학 동문불자들이 범어사 전각을 소독하고 있다.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신기열)는 8월 30일 범어사 경내 일대에서 '범어사 주변 환경 정화 및 방역 캠페인'을 진행했다.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흘러내리는 폭염, 모두가 시원한 곳을 찾아 쉬는 주말이지만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회원들은 청소도구를 손에 들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량을 발원하는 회원들의 마음이 모여 도량 곳곳은 정화되고 소독이 완료됐다.

도량 환경 정화에는 범어사 포교국장 해륜 스님과 신기열 총동창회장, 서종현 수석부회장, 정봉호 사무총장 등 회원 50여명이 동참했다.

회원들은 3조로 나눠 버스정류장부터 어산교, 부도전, 휴휴정사, 계곡 일대 등 도량 곳곳을 청소했고 신도들이 많이 찾는 설법전과 공양간의 방역도 마무리했다. 문고리와 손잡이 소독은 더욱 철저히 진행했고 경내 잡초 제거, 계곡을 방문한 일반인들이 버린 오물도 빠짐없이 수거했다.

총동문회는 도량 수호를 위한 청소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의 방문이 많은 8월 넷째 주 일요일을 정기 봉사일로 정해 청소를 실시하고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으로 도량 보호에 앞장서 의미를 더했다. 이뿐 아니라 범어사 주요 법회 및 행사에서 총동창회 회원들은 발열체크 및 소독 등으로 방역 봉사를 쉬지 않고 있다.

포교국장 해륜 스님은 "방역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수고해주시는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4회 가야효문화축제, 청소년 위한 백일장 눈길

'청소년 창작미술경연 및 글짓기 대회' 작품 공모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송산)이 청소년 창작미술경연 및 글짓기 대회 작품을 공모한다. 가야문화진흥원은 매년 가야효문화축제를 개최하며 가야문화를 널리 알리고 효의 정신을 강조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청소년 백일장으로 행사의미를 알린다.

대회는 '효'와 '가야문화'를 주제로 진행되며 미술창작 부문과 글짓기(운문, 산문) 부문을 접수 받는다. 공모작 접수마감은 9월 11일까지 이며 작품은 이메일(purnick@naver.com)과 우편(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1310, 2층)으로 보내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부산, 경남 지역의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청소년은 모두 접수 가능하다. 심사는 9월 12일 진행되며 시상결과는 가야문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3일 오후 2시에 발표된다.

시상은 종합대상에 (사)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상과 문화상품권 30만원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최우수상은 경상남도 교육감상, 경상남도지사상, 김해시장상, 가야대학교총장상 및 부상이다. 시상은 모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이사장 송산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성장 할 수 있는 진일보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효와 가야문화에 대해 돌이켜 보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부산聯, 나눔으로 전한 사무실 이전 개소

어린이 및 청소년 계층 포교 후원금 전달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는 8월 28일 이전 개소식 및 후원금 전달식을 새롭게 문을 연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이전 개소식은 테이프 절단식과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및 인사말에 이어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특히 계층 포교 후원 지원금을 사단법인 동련,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에 각 100만원, 총 300만원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회장 원허 스님은 "회원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힘을 보태주셔서 새롭게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발전하고 성장하는 연합회가 되도록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서보석 조계종부산연합회 신도회장은 "이전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며 "저도 옆에서 지켜보며 성장을 발원하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하겠다. 좋은 인연의 자리로 성장하시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선향다회 회원을 대표해 한복순 회장은 "스님들의 활동과 포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함께 마음을 모았다"라고 인사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2011년 1월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그 해 2월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개관식을 진행, 10여 년 간 운영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법륜불자교수회 16·17대 회장 이취임식



불자교수들의 신행과 학술활동 및 전법활동의 중심인 법륜불자교수회가 8월 30일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제16·17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법륜불자교수회는 지난 1988년 창립하여 32년간 60여회의 수련회와 140여회의 성지순례법회 및 불교문화의 만남과 저술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불교인문학포럼 개최 등으로 불교위상을 높여왔다.

김성규 전임회장은 이임사에서 "불교활동을 함께한 분들에게 감사하고, 법륜불자교수회의 창립정신으로 불교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저술활동과 지역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호경 17대 신임회장은 "30년 여년 불교발전에 매진한 김성규 회장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불자교수회의 활성화를 위해 불교에 대한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소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정부시책의 감염병의 확산예방과 조계종단의 방역수칙 강화 일환으로 동화사 회주 의현 스님과 주지 능종 스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장세철 동화사 신도회장, 강정규 대구사원연합회 신도회장 및 대구지역의 신행단체장이 참석했다.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은 "불교중흥에 크게 공헌한 법륜불자교수회장 이취임식과 함께 깊은 불심과 신심으로 법륜불자교수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통도사, 버섯 사진 통해 자연의 소중함 알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9월 1일 경내 명월료에서 영남 알프스 야생버섯 사진전 '아 여기 참모습' 개막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방장 성파 스님과 영남 알프스 야생버섯 연구회 회원들이 영남 알프스 일대와 통도사 근처에서 본 버섯들을 위주로 촬영해 담았다. 전시사진에는 평소 보기 힘든 꽃송이버섯, 경단 버섯 등 희귀한 버섯 등이 촬영 돼 눈길을 끈다.

버섯은 자연의 청소부로 불리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도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미학에 담아 전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영남 알프스 야생버섯연구회'가 결성됐으며 통도사에서 첫 전시를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방장 성파 스님, 주지 현문 스님을 비롯해 최석영 울산대 명예교수, 김언배 교수 등 사부대중 30여명이 동참했다. 전시는 9월 20일까지다.

방장 성파 스님은 "발표 되지 않은 희귀한 버섯이 많이 발견됐다"며 "연구회에는 생태계 쪽 연구자 뿐 아니라 인문학 및 예술 전문가들이 함께 활동한다.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의보고를 널리 공유할 수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주지 현문 스님은 "버섯이란 작은 대상을 통해 생태계의 흐름과 생명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석영 교수는 "생태계가 살아 있는 곳에 버섯이 있다. 그 가치를 널리 알기를 바란다. 자연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